

추 모 사

산하대지에는 생명이 가득하고 만물은
함께 춤을 춥니다. 생명이 힘차게
자라나는 계절에 우리 불교계에서
누구보다도 생명사랑에 앞장서셨던
인곡당 법장큰스님의 유업을 기리는
'2010 생명사랑, 자비콘서트'가 열리게
된 것은 참으로 시의적절하고 뜻깊은
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.

돌이켜보면 큰스님께서서는 이사와
사사에 걸림없는 원력보살이셨으며

중생에 대한 한없는 자비심을 실천하셨던 현대의 포대화상이셨습니다.

아울러 국가적으로는 나라가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종교지도자로서 그 선구적인 역할을 다하셨습니다.

그러나 법장 큰스님의 덕화를 회고하면서 가장 큰 업적으로 기려야 할 것은 바로 생명 사랑의 가르침입니다. 큰스님께서서는 평생 동안 '생명'과 '사람'을 가장 귀하게 여기셨습니다. 큰스님께서

**불교계 최초로 '생명 나눔 실천회'를
설립하고 생명 살리기 운동에 나선
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.**

**큰스님께서서는 생명 나눔 운동을
전개하며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
위한 보살행을 실천하셨으며 끝내는
마지막 남은 법구마저 병원에 기증하고
떠나심으로써 생명 나눔의 귀감을
보이셨습니다.**

**오늘 '2010 생명사랑, 자비콘서트'를
개최하는 것 역시 큰스님의 생명사랑
실천을 기리는 일인 동시에 스님의**

생애와 사상을 재조명하여 ‘생명사랑 운동’을 확산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.

그리고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법장스님이 온 생애를 거쳐 보여주신 생명사랑의 정신과 생명나눔운동을 널리 확산시키고 우리 사회와 세계에 자비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기구와 활동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. 온 생명이 조화롭게 어울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법장스님을 극진히 추모하는 일일 것 입니다.

**끝으로 법장 큰스님의 유지를 계승하기
위해 노력하면서 오늘의 이 콘서트를
준비하신 인곡당 법장대종사 유업계승
재단 설립추진위원회 도신 스님을
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과 오늘 콘서트에
참여해주신 모든 출연자분들께 감사와
치하의 말씀을 전합니다. 감사합니다.**

불기 2554년 7월 2일

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